

## 조선시대 퇴계원(退溪院)의 문화사

김세호\*

<차 례>

1. 서론
2. 퇴계원의 역사와 지역적 특징
3. 교통의 기능과 전원의 아취
4. 조선 후기 경영된 명가의 별서
5. 결론

### <국문초록>

오늘날 현전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옛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길은 역원(驛院)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역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역원의 하나였던 퇴계원(退溪院)에 주목했다.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을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도성 근교의 역원으로 기능했지만 일반적인 행정정보와 일부 풍속만이 소개되고 있을 뿐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문헌기록을 통해 퇴계원의 역사를 밝히고 이곳을 경유한 기록을 분석하며 이곳에 살았던 이들의 면면을 살펴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퇴계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기부터 도성의 가장 가까운 역원으로 기능하며 국왕의 행차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능행(陵幸)의 행차를 쉬어가고 농사의 형편을 살폈던 정황 등이 나타난다. 둘째,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서울 동쪽을 왕래하는 경유지로 활용되었다. 유람객이 점심식사를 하거나 만남을 약속했던 면모가 포착된다. 셋째, 역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며 사대부의 별서지로 각광을 받았다. 선영을 경영하고 자연의 풍광을 누리며 정치적 처세를 위해 활용한 모습이 보인다. 조선시대 역원의 기능과 도성 근교의 특징이 혼재된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도제원(渡濟院), 토원(兔院), 역원(驛院), 이단상(李端相), 이유원(李裕元)

## 1. 서론

오늘날 현전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옛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정취가 가득한 곳들이 명승으로 지정되고 있고 이곳을 체험하는 행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끝없이 이어졌던 길에는 나그네가 쉬어가던 역원(驛院)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중앙관청의 공문을 지방관청에 전달할 때 마필을 갈아타거나, 먼 길을 가는 행인이 쉬어가는 등 교통 및 통신의 역할을 담당했던 시설이다. 역원은 옛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각각의 역원이 지닌 특징의 분석도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역원의 하나인 퇴계원(退溪院)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퇴계원은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조선시대에 설치된 원(院)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지금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과거에 이곳은 도성(都城)에서 동대문으로 나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역원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행정정보와 퇴계원산대놀이 같은 풍속만이 소개되고 있을 뿐,<sup>1)</sup> 국왕의 능행에서 이곳에 들른 기록이 여럿 보이지만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1) 퇴계원산대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어 있고 선행연구 및 여러 사전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 『퇴계원산대놀이』, 월인, 1999;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 『퇴계원산대놀이』, 민속원, 2014 등)

퇴계원은 역원의 특징이 두드러진 곳이지만 역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도성 근교 지역의 문화사를 대변하는 공간으로도 주목된다. 이에 먼저 퇴계원의 역사 기록을 통해 지역의 특징을 조명하고, 역원으로 기능한 사실에 근거해 이곳을 경유한 이들의 기록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퇴계원 일대에 살았던 명사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현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과거의 정취는 모두 사라졌지만 기록을 통해 그 모습을 되살려보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대표적인 역원의 하나였던 퇴계원의 문화사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 2. 퇴계원의 역사와 지역적 특징

조선 전기 퇴계원은 본래 도제원(道濟院/渡濟院)이란 이름으로 일컬어진 역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사에 따르면, “도제원은 풍양현 남쪽 15리 즈음에 있고 일명 토원(兔院)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sup>2)</sup> 도제원이란 명칭의 유래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어원 상 ‘길을 건너다’는 의미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 건너야 하는 냇물이 많았고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불어나면 교통이 어려웠다는 기록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서 토원으로 불렸던 이유 때문인지 조선 전기에는 도제원보다 토원이라는 기록이 주로 회자되었다.

이러한 토원은 결국 퇴계원(退溪院)이 되었지만 지명의 변천사는 그리 자세하지 않다. 예종(睿宗)이 선왕 세조(世祖)의 능인 광릉(光陵)으로 행차하는 길에 교통이 불편하여 하천 바닥을 길로 만들고자 하천을 물리쳤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태조(太祖)가 환궁하다가 마음이 변

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楊州牧」: 在豐壤縣南十五里許, 一名兔院.

해 이곳에 궁궐을 짓고 살면서 조례를 올린 데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도 전한다.<sup>3)</sup> 그러나 예종 이후에도 여전히 토원의 기록이 주를 이루는 현실을 보면, 이상의 유래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다분하다.

퇴계원은 본래의 토원이란 이름을 주로 사용하되 역사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지명이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하면, 조선 중기 윤휴(尹鑄)가 퇴가원(退駕院)이라 지칭한 이래 조선 후기에 이르러 퇴원(退院)으로 일컬어졌으며 19세기로 들어선 뒤 퇴조원(退朝院) 또는 지금의 이름대로 퇴계원이라 부른 사실이 확인된다.<sup>4)</sup> 발음의 유사성을 볼 때 토원이란 이름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sup>5)</sup> 이 글에서는 현대 지명에 의거해 퇴계원으로 대표하되 원문의 기록에 의거하여 일부는 토원으로 기술했음을 밝힌다.

퇴계원은 조선 전기부터 국왕이 쉬어가는 동교(東郊)의 역원으로 기능했다. 이는 여타 역원들과 분명하게 차별화된 모습인데 도성 가까이에 있으면서 능행의 길목에 위치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음의 기사에서 그 면모를 볼 수 있다.

임금께서 광릉(光陵)에 이르러 제사를 거행하시고 다시 숭은전(崇恩殿)에

3)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진한엠앤비, 2015.

4) 윤휴는 토원을 퇴가원(退駕院)이라 하여 지명의 변화를 예고했다. (윤휴(尹鑄), 『백호전서(白湖全書)』 권34, 『풍악록(楓岳錄)』) 순조(純祖) 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퇴계원의 지명이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정확한 변화의 과정은 알 수 없다. (『승정원일기』 순조 11년(1811) 4월 29일 39번째 기사)

5) 조선 중기 이황(李滉)이 자신의 호를 정할 때 토계(兔溪)를 퇴계(退溪)로 바꾸어 명명했는데 토원이란 지명이 본래부터 있었던 만큼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柳道源, 『退溪集攷證』 권1 第一卷[詩], 『獨遊孤山云云[孤山在丹砂北十里, 琴惺惺齋藏修處. 俗傳, 洛江抱山迴流, 一日忽大雷震, 劈破蒼崖, 江流出其間故云]: 退溪: 在溫溪下流五里, (年譜)溪俗名兔溪, 先生以退改兔, 因自號焉。)

이르러 다례(茶禮)를 행하셨으며 이어 봉선사(奉先寺)에 행차하여 향폐(香幣)와 예불(禮佛)을 올리셨다. 어가를 수행한 종척(宗戚)과 재신(宰臣)도 또한 예배하였다. 처음 어가가 토원(兔院)에 이르자 양주목사(楊州牧使) 윤호(尹壕)가 맞이해 배알하니 임금께서 물으셨다. “그대의 고을에서는 굶어죽은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윤호가 대답했다. “지금 마침 창고를 열어 진휼(賑恤)했습니다. 또 본 고을은 도성과 가까워 백성들 가운데 더러 장작을 팔아 스스로 생활하기에 기아(飢餓)가 심하지 않습니다.”<sup>6)</sup>

성종(成宗) 대 국왕이 퇴계원에 들른 기사이다. 세조(世祖)의 능인 광릉(光陵)에 행차해 제사를 거행하고 광릉의 영전인 숭은전(崇恩殿)에서 다례를 행하였으며 역시 광릉의 원찰(願刹)인 봉선사(奉先寺)를 방문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일정에서 광릉으로 향하는 길에 토원에 잠시 들른 기록이 주목되니, 양주목사(楊州牧使)가 영접하자 직접 민생을 챙긴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행차를 쉬어가는 동시에 백성들의 삶을 목도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병행한 모습이다.

성종의 경우처럼 역대 국왕들이 퇴계원에 머물렀던 정황은 전시기를 통틀어 끊임없이 간취된다. 이러한 행적 가운데 세종(世宗) 대의 기록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국왕이 퇴계원에 머물렀던 최초의 사례로 보이는데 풍양(豐壤)의 이궁(離宮)으로 거둥하던 중 토원의 냇가에 이르자 비가 내려 행차를 멈춘 뒤 술자리를 베풀었다고 하였다.<sup>7)</sup> 애초부터 동교에서 국왕이 행차를 멈추기에 적절한 공간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세종이 머물면서 이후 이곳에 주정소(晝停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후대

6)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成宗) 2년(1471) 3월 1일 1번째 기사: 上詣光陵, 行祭. 又詣崇恩殿, 行茶禮, 仍幸奉先寺, 奠香幣·禮佛, 隨駕宗宰亦拜. 初駕至兔院, 楊州牧使尹壕迎謁. 上問曰: “爾邑飢民死者幾何?” 對曰: “今方發倉賑救, 且本邑近都城, 民或賣薪自活, 不甚飢餓.”

7)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년(1420) 4월 3일 7번째 기사.

의 국왕들이 주정소를 이용하며 퇴계원의 기능은 더욱 증대되었다.

주정소는 국왕이 거동하던 중 잠시 멈춰 수라를 드는 공간이었지만, 행차가 거듭 머물면서 다양한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조(世祖)는 직접 풍양과 퇴계원 등지를 방문하여 밋자리를 상지(相地)한 적이 있다.<sup>8)</sup> 태조(太祖)의 능을 위시하여 동구릉(東九陵)이 조성된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종은 양주(楊州)의 교외로 나가 사냥을 행한 적이 있었고 이때 퇴계원에 머물면서 사냥을 구경했다고 한다.<sup>9)</sup> 사실상 군사훈련을 거행한 것으로 퇴계원이 동교에서 행해진 강무(講武)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예로부터 교통이 발달한 곳에는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또한 역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기에 이를 이바지할 인력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조선시대 역원의 기록들을 보면, 역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마을이 형성된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당시 전국 대부분의 역원에는 “촌(村)”이 붙은 마을의 지명이 존재했는데 역원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든 결과라 하겠다.

퇴계원은 도성 근교의 대표적인 역원이었기에 당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그 여건이나 규모는 다른 곳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 같다. 조선 후기 퇴계원의 마을을 기록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내가 살펴보건대, 한수(漢水) 동북쪽 부락은 지금의 양주·평구(平丘)·용진(龍津)·토원 등의 지역이다. 위례성(慰禮城)이 지금의 한양성(漢陽城) 동북쪽에 있으니 명백하지 않은가?<sup>10)</sup>

8)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3년(1457) 10월 6일 1번째 기사.

9) 『성종실록』 성종 4년(1473) 10월 18일 1번째 기사.

10)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6집 地理集 권3 疆域考[其三], 『慰禮考』; 鏞案: 漢水東北部落者, 今楊州·平丘·龍津·兎院等地也. 慰禮城之在今漢陽城東北, 不旣明乎?

-토원은 풍양 남쪽 15리에 있다. 옛 이름은 도제원이다. 경도(京都)와 가깝고 토지가 비옥해 농사지를 만하다. 경도의 경상(卿相) 집에서 전장을 둔 것이 많고 토원의 마을은 더욱 비옥하다.<sup>11)</sup>

전지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지은 『위례고(慰禮考)』의 일부이고 후자는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저술한 『명오지(名塢志)』에서 토원을 언급한 기사이다. 모두가 거주지로서의 퇴계원에 주목한 상황이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지어 우리나라 강역에 관한 역사지리를 논했고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을 고증하며 온조(溫祚)대의 기록을 참조했다. 이때 서기 23년(온조왕 41) 2월, 한수 동북쪽의 여러 부락에서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해 위례성을 수리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수 동북쪽의 부락이 어디였는지 고증했다. 여기서 정약용은 양주·평구(平丘)·용진(龍津)·토원 등의 지역을 거론한다. 양주는 양주목(楊州牧)이 있는 곳을 말하고 평구는 평구역(平丘驛) 일대를 가리키며 용진은 지금의 두물머리 일대이다. 모두 조선 후기 고을이 형성된 곳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원을 병칭한 사실이 흥미롭다. 퇴계원 지역에 이미 거대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식한 발언이다.

한편 성해응은 『명오지』에서 경기도 지역 가운데 살 만한 곳을 일일이 열거했다.<sup>12)</sup> 이어 그 특징을 자세하게 덧붙였는데 토원의 존재를 빠뜨리지 않았다. 도성과 가깝고 토지가 비옥하며 당시 사대부들 가운데 고위직을 역임한 집안에서 전장을 소유한 곳이 많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

11)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권64, 『名塢志』: 菟院在豐壤南十五里, 舊名道濟院. 近京都而土肥可耕, 京都卿相家多置庄, 而院村尤沃.

12) 선행연구에서 성해응(成海應)의 『명오지』에 나온 거주지에 대해 다루었다. (안대회,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후기에 접어들면 명가(名家)의 선영과 별서가 도성 주변에 포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퇴계원 역시 이러한 대상지로 각광받았던 양상이다. 특히 토지가 비옥하다는 특징을 거론하며 농사에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한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성해응이 농토의 성격을 언급한 것처럼 퇴계원 일대는 한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된 듯하다. 국왕의 명에 따라 농사를 간심(看審)했던 기록이 산견된다.

안숙(安燾)의 서계는 다음과 같다. “신이 양주 남면(南面)의 퇴원 지방에 달려가서 전야(田野)를 살펴보니, 이번에 내린 비는 겨우 한 번 호미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을 모아둔 곳은 지금 이앙하고 있으나, 높고 메마른 곳은 빗물이 흡족하지 않아 이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을보리는 흉년을 면해 지금 수확했고 봄보리도 지금 익어가고 있으며, 서·숙·두·태는 싹이 나서 모두 좋고 목화는 첫 번째 감매기를 하였습니다. 돌아서 양주 금곡면(金谷面) 석실(石室) 지방에 이르니, 비가 거의 한 번 쟁기질을 할 정도로 내려 한창 이앙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봄보리와 가을보리는 모두 흉년을 면하였으나 가을보리가 봄보리보다 다소 나았으며, 기타 밭에 심은 각종 곡식은 퇴원에서 본 것과 한결같았습니다.<sup>13)</sup>

정조(正祖) 대 안숙(安燾)이 양주 농경 상황을 진달한 기사이다. 봄날 동교로 나가 모내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했다. 안숙은 처음 퇴계원으로 나가 상황을 보았고 이어 석실(石室) 등의 상황을 함께 보고했는데 퇴계원을 인근 지역의 사정을 진달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13) 『일성록(日省錄)』 정조(正祖) 16년(1792) 윤4월 23일 18번째 기사: 燾書啓, 以爲臣馳往楊州南面退院地方, 看審田野, 則今番雨澤, 僅得一鋤, 有水根處, 今方移秧, 而高燥處, 雨水未洽, 姑未移秧, 秋牟免歉, 今已收刈, 春牟亦方向熟, 黍粟豆大, 立苗俱善, 木花初除草. 轉至楊州金谷面石室地方, 則雨澤幾爲一犁移秧, 方張春秋牟, 俱得免歉, 而秋牟少勝於春牟, 其他田種各穀, 與退院所見一般.

사실이 드러난다. 도성을 나서며 가장 먼저 마주했던 퇴계원 일대의 전야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처럼 퇴계원은 국가적으로 중시되는 곳이자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이는 역원이 설치된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통이 편리했기에 물산이 모였을 테고, 물산이 모여드니 생계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국왕이 직접 행차하거나 관리들이 민정 시찰을 위해 방문한 것도 모두 교통의 기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창작된 유람기의 여정을 보면 퇴계원을 이용했던 기록들이 심심찮게 나타나는데, 이는 구한말까지 지속된 현상으로 퇴계원이 역원의 기능을 꾸준히 수행했음을 증언한다.<sup>15)</sup>

다만 사람이 많아지면 사건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퇴계원은 교통의 요지라는 특징이 더해지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종 때에는 퇴계원에 도적이 출몰하여 부녀자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16)</sup>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이었기에 발발한 일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에는 왜군과 교전이 일어나기도 했다.<sup>17)</sup> 왜군이 쳐들어오는 대로(大路)에 해당하며 격전지가 된 모습이다. 반면 일제강점기에는 의병(義兵)이 활동하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했다.<sup>18)</sup> 교통의 왕래가 잦았던 지역적 특징에서

14) 이러한 면모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성록』 정조 20년(1796) 8월 12일 5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순조 11년(1811) 4월 29일 39번째 기사; 순조 14년(1814) 5월 13일 42번째 기사 등)

15) 吳宏默, 『江原道旌善郡叢錄』, 「閏四月一日戊子」; 『慶尙道慈仁縣叢錄』, 「戊子八月」; 『慶尙道固城府叢錄』, 「二十日癸亥」. 이상은 모두 구한말 오홍묵(吳宏默)의 기록으로 홍인문으로 나와 퇴계원에 들러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묵어갔던 정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16) 『성종실록』 성종 2년(1471) 1월 16일 3번째 기사; 4월 30일 1번째 기사.

17)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宣祖) 25년(1592) 09월 15일 4번째 기사.

18) 황현(黃玿), 『매천야록(梅泉野錄)』. 1908년부터 1909년 사이 「의보(義報)」 기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상은 모두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역원의 특징에 따른 퇴계원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 3. 교통의 기능과 전원의 아취

조선시대 퇴계원은 어떠한 성격을 지닌 역원이었고 그 기능은 어떠한을까. 이는 퇴계원이 지닌 본연의 특징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처음에서 목적으로 삼았던 사항이기도 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퇴계원은 동교의 대표적인 역원으로 기능했고 전원의 아취를 품은 한적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사의 기록을 포함해 퇴계원을 대상으로 읊은 시문이 다수 전하는데 이는 당대 문인들이 이곳을 특별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역원의 기능에 주목하여 퇴계원의 옛 모습을 알아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서울의 동교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역원이 있었다. 하나는 퇴계원이고 다른 하나는 누원(樓院)이다. 누원은 다락원(多樂院)이라고도 일컬어진 곳으로 본래 다락으로 된 원이 있었기에 명명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sup>19)</sup> 지금의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있었으니 행정구역상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과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누원 역시 도심 가까이에 있어 조정에서 중시했던 곳이다. 이로 인해 퇴계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원과의 비교가 어느 정도 요구된다.

정조 대에 퇴계원과 누원을 함께 논의한 기사가 있다.

내가 말했다. “토원과 누원(樓院)은 노정(路程)의 멀고 가까움이 어떠한가?”

퇴계원에서 일어난 의병의 전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정수(鼎修: 서정수(徐鼎修)) 등이 아뢰었다. “토원은 누원에 비해 조금 가깝지만 7개의 큰 교량이 있고, 누원은 도로가 조금 좁고 거리 또한 조금 먼 듯하나 교량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길이 가까워도 거행하기에 균색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멀어도 크게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나으니, 누원 길로 정하라. 양주 목사는 오늘 이로부터 곧바로 내려가서 누원 길을 통해 광릉의 동구(洞口)로 달려가 노정을 살펴보라.” 하였다.<sup>20)</sup>

정조가 능행을 앞두고 신하들에게 토원과 누원의 노정을 확인한 기사이다. 서정수(徐鼎修) 등의 답변에 의하면 토원은 누원에 비해 길이 가깝지만 교량(橋梁)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였다. 정조는 폐단을 없애고자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누원을 통해 광릉으로 가자고 명을 내렸다. 정조가 지향한 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거니와 토원이 지닌 특징도 드러나는 기사이다.

실제 퇴계원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많은 물을 건너야만 했다. 오늘날도 서울에서 퇴계원으로 향하는 길에 중랑천(中浪川)과 왕숙천(王宿川)을 비롯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무수한 물줄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은 단지 퇴계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불편함을 안겨다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비가 와서 물이 불면 교통에 제약을 가져왔고 이는 국가적으로 또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sup>21)</sup> 능행을 앞두고 비가 많이 오

20)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9월 4일 1번째 기사: 予曰: “寔院與樓院程道遠近, 何如?” 鼎修等曰: “寔院則比樓院稍近, 而有七大橋, 樓院則道路稍似窄狹, 里數亦少迂, 而無橋梁之可造處矣.” 予曰: “然則與其路近, 而窘於舉行, 無寧稍遠而大爲省弊, 以樓院路爲定. 楊牧今日自此直爲下去, 從樓院路, 馳至陵洞口, 看審程道, 可矣.”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9월 4일 28번째 기사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글자에 일부 출입이 있다.)

21) 예를 들면, 성종 대에 퇴계원 일대의 물이 불어나자 배를 준비시킨 기사 등을 볼 수 있다. (『성종실록』 성종 14년(1483) 6월 3일; 6월 11일)

면 행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사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sup>22)</sup>

반면 물은 교통에 일부 불편을 안겨다주었지만 들관의 풍경과 어우러지며 새로운 경관을 연출했다. 전원의 아취가 묻어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신선한 풍광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퇴계원을 지난 문인들은 이러한 정경에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원에서 지은 시를 보면 대부분 자연의 모습에 도취한 심상이 가득하다. 이는 도성과 대단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사실상 세속의 진애(塵埃)와 떨어진 곳에 있다고 본 것으로 당시 퇴계원 일대의 분위기가 대단히 한적했음을 보이는 증거이다.

조재호(趙載浩, 1702~1762)의 시는 다음과 같다.

|          |  |
|----------|--|
| 遲回城市覺愁繁, | 성시(城市)에서 머뭇거리다 근심 번다함 깨닫고                |
| 萬事高歌東出門. | 온갖 일에 높이 노래하며 동쪽으로 문을 나섰네.               |
| 溪渡斜分秋草路, | 시내 나누는 가을 풀 자란 길 비스듬히 나누고                |
| 野雲低傍夕陽村. | 들관 구름은 석양 지는 마을로 낮게 드리우는구나.              |
| 馬場遙柳看初盡, | 마장의 먼 버들 바라보니 모두 사라져가고                   |
| 兔院歸樵近却喧. | 토원에 돌아가는 나무꾼 가까워지자 소란하네.                 |
| 客裡佳辰知不遠, | 나그네 마음 아름다운 계절 멀지 않음 알겠으니                |
| 誰家留醉菊花樽. | 누구 집에서 국화주(菊花酒)에 취해 머무를까? <sup>23)</sup> |

조재호가 도성을 나와 저녁 무렵 동쪽으로 가며 지은 시이다. 조재호의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경대(景大), 호는 손재(損齋)이다.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을 막기 위해 힘쓰다가 역모로 몰려 사사된 인물로 유명하다. 1759년(영조 35) 영조가 정순왕후(貞純王后)를 계비로 책봉하려

22)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8월 4일 35번째 기사; 8월 5일 14번째 기사.

23) 趙載浩, 『損齋集』 권1, 『晚發東行』.

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유배된 적이 있고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춘천에 은거한 뒤 도성과 별서를 왕래하며 자신의 여정을 시문으로 남겼다. 이상은 춘천으로 향하던 길에 토원 일대를 지나며 지은 시로 보인다.

조재호는 도성을 벗어나 퇴계원 일대에 들어서며 세속에서 벗어난 한적한 정취를 만끽했다. 본래 도성을 나오기 직전에는 그리 마음이 좋지 못했던 것 같다. 높이 노래한다는 것은 장가(長歌)와 유사한 말로 세속과 어긋난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뜻한다. 당시 벼슬에서 물러나게 된 처지의 한스러움이 투영된 시어인 듯하다. 그러나 막상 교외로 나오면서 조재호는 위안을 얻었다. 마장(馬場)의 드넓은 전야를 보고 퇴계원의 산수를 만나며 한가로운 정경에 빠져들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계절을 예찬하며 술에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퇴계원 일대의 정경이 수심을 덜어낼 만큼 매력적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퇴계원은 당시에 산수가 어우러진 곳으로 명승적 가치 또한 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퇴계원에 접어들면 저 멀리 삼각산(三角山)을 조망할 수 있었다.<sup>24)</sup> 또한 조선시대 문사들이 이곳을 지나며 읊은 시를 보면, 대구를 활용해 일대의 풍광을 읊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모두 이 일대에서 명성을 자랑했던 곳들을 병칭시킨 정황도 보인다. 김세렴(金世濂)은 토원의 물과 불암산(佛巖山)의 봉우리를 대비시켰고, 어유봉(魚有鳳)은 광릉의 산과 토원의 물을 언급했으며, 이익상(李翊相)은 토원의 시냇물과 천마산의 산빛을 대우로 삼았다.<sup>25)</sup> 불암산, 광릉, 천마산 모두 상징

24) 任相元, 『恬軒集』 권24, 「寃院亭, 用前韻」.

25) 金世濂, 『東溟集』 권3, 「上塚」; 魚有鳳, 『杞園集』 권6, 「入嘉陵路中口占」; 李翊相, 『梅澗集』 권2, 「次壺翁[南公龍翼號壺谷]用韓昌黎酬盧雲夫詩韻, 仍奉赤谷翁[金公益濂號].」

성이 높았던 명승들로 퇴계원이 지닌 위상과 명승적 가치를 함께 고찰할 수 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산수유람을 즐겼고 동쪽을 유람할 경우에는 동대문을 나와 반드시 퇴계원을 거쳐 이동했다. 그런데 퇴계원이 국왕의 행차에서 중시된 것처럼 사대부의 유람과 여정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사가 이를 방증한다.

초7일 퇴원점(退院店)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날 반중(泮中)에 들어가니 최유서(崔孺瑞)가 자못 함께 가려 하였으나 탈 말이 없어 가지 못했고 출발할 때 읊시 세 수를 지어 그 한스러움을 읊었다. 7일 비가 내리자 곁에서 보는 자들이 하늘이 희롱한다고 비웃기에 내가 말했다. “그만해라. 주 선생(朱子)은 비를 만나 서명(西銘)을 풀이했고 한유(韓愈)씨는 글을 지어 형산(衡山)의 구름을 걷어냈다. 오늘의 유람은 비가와도 괜찮고 날이 개어도 괜찮다.” 마침내 비를 무릅쓰고 동소문(東小門)으로 나가자 하늘이 점점 상쾌해지고 실구름이 드디어 걷히기에 말 위에서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하늘은 할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으니, 우리의 도(道) 예로부터 이와 같았네. 한 번의 비로 진애를 씻어내어, 산수가 다시 기이함 뽐내는구나.” 오후에 퇴원에 이르니 자호(子皐)가 와서 기다린 지 이미 오래였다.<sup>26)</sup>

이병원(李秉遠, 1774~1840)이 1816년(순조 16) 영평(永平)을 유람한 여정의 도입부에 해당한다. 당시 동릉(東陵)에서 오래도록 숙직을 서느라 답답한 심사를 가눌 길이 없었는데 영평에 기이한 경관이 많다는 추천을

26) 李秉遠, 『所菴集』 권15, 「永平山水可遊者記」: 以初七日約退院店。當日入泮中, 崔孺瑞頗欲偕, 以無騎不能成, 臨發成三律以道恨。七日雨, 傍眊者嘲其有天公戲, 余曰: “無爾也。朱先生遇雨解西銘, 韓愈氏爲文開衡山雲。今日之行, 雨亦可晴亦可。” 遂乘雨出東小門, 天漸爽, 織雲遂捲, 馬上拈一絕云: ‘能天不能人, 吾道古如茲。一雨洗塵埃, 山水更逞奇。’ 午後到退院, 子皐來待已久矣。

받고 광릉(光陵)에서 일하는 권자호(權子皜)와 같이 유람을 약속했다고 하였다. 유람 당일 성균관(成均館)에서 날씨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대단히 흥미롭고, 특히 퇴계원의 면모에 주목하자면 약속의 장소라는 특징이 드러난다. 당시만 해도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에, 누군가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장소를 미리 약속해야만 했다. 이에 이병원은 퇴계원을 지목했고 마침내 벗을 만나 유람을 시작했다. 이는 퇴계원이 도성의 가장 가까이 있는 역원으로 유람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안겨다주기 충분했기에 가능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이병원이 오전에 출발해 오후에 퇴계원에 도착한 것처럼 도성에서 퇴계원에 이르는 데에는 만나질의 시간이면 충분했다. 이로 인해 국왕은 퇴계원의 주정소에서 수라를 들었다고 하였고 이처럼 점심식사를 하고 쉬어갔던 문인들의 기록도 다수 산견된다. 김구(金構)는 1670년(현종 11) 가을, 춘천과 화천 등지를 유람한 적이 있는데 이날 아침 한양 명례동(明禮洞)을 출발해 동대문으로 나와 토원을 지나서 금양옹주(錦陽翁主) 묘 아래 촌사(村舍)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였다.<sup>27)</sup> 사실상 퇴계원을 지나는데 채 만나질을 소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명한(李明漢)도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 지낸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기사에서 가평으로 향할 때마다 퇴계원에서 점심을 먹었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sup>28)</sup> 김수증(金壽增)은 곡운(谷雲)으로 유람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퇴계원에서 쉬어가며 말을 먹이고 도성으로 들어왔던 여정을 증언하기도 했다.<sup>29)</sup> 휴식의 기능을 담당한 퇴계원이 지닌 역원의 기능을 여실히 보여준다.

27) 金構, 『觀復齋遺稿』 권2, 『東行日記』: 以月之二十四日, 自明禮洞京第, 日出而發行, 出自東大門, 過涑溪橋菟院, 午食於陵山錦陽翁主墓下村舍.

28) 李明漢, 『白洲別稿』 권4, 『丁丑四月以後記事』.

29) 金壽增, 『谷雲集』 권3, 『山中日記』: 十九日, 平明發行, 朝飯同縣地, 秣馬菟院林亭, 夕入城.

퇴계원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서울과 춘천을 왕래하는 경춘선 철도가 통과하게 되었고 얼마 후 유원지가 건설되었다.<sup>30)</sup> 특히 유원지는 교외에 위치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회자되며 이름이 높았던 듯하다. 민경태(閔庚台, 1887~1960)는 퇴계원유원지를 구경하고 시를 지은 적이 있다. 이때 유원지의 모습이 신선세계와 같다고 예찬했고 꽃과 버들이 10리에 걸쳐 아름답게 피어난 정경을 묘사했다. 또한 푸른 산에 붉은 꽃이 점점이 물들이니 유람객들이 물을 따라 오리라며 유원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sup>31)</sup> 아마도 왕숙천 일대의 물길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 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하고 전원의 아름다움을 품은 면모가 그대로 계승된 결과라고 하겠다.

#### 4. 조선 후기 경영된 명가의 별서

정약용의 언급처럼 퇴계원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곳은 단지 일반 백성들을 위한 터전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듯하다. 성해응은 이곳에 고관대작을 지낸 명가(名家)의 전장(田莊)이 많음을 언급했다. 이는 퇴계원이 지닌 지리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조선 후기 권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실 속에 나타난 특징으로 생각된다. 실제 이곳에 선영을 바탕으로 병사(丙舍)를 두거나 별서를 경영한 이들의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어떠한 명사가 별서를 두었고 어떠한 가문이 터전을 마련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30) 『동아일보』, 『江原心臟을 貫通하는 京春鐵道の 開通式 沿線 名勝에 御陵, 佛巖 退溪院 三百官民이 參集舉式[寫](春川)』, 1939년 7월 23일자 2단 4면; 『退溪院에 遊園地建設, 運動場 兒童公園工事』, 1939년 8월 15일자 2단 8면.

31) 閔庚台, 『四友亭集』 詩律, 『退溪院遊園地』.

가장 먼저 주목되는 인물로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을 들 수 있다.<sup>32)</sup> 이단상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능(幼能), 호는 정관재(靜觀齋)이다.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 손꼽히는 이정귀(李廷龜)의 손자이자, 대제학을 지낸 이명한(李明漢)의 아들로 태어났다. 1649년(인조 27)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이후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학문에 전념하며 생을 마친 인물이다. 정관재는 그가 은거하여 머물렀던 경영한 별서의 당호이다.

이단상은 벼슬에서 물러나 영지동(靈芝洞)에 별서를 경영한 뒤 학문에 침잠했다. 전원의 한적한 분위기를 취해 은거를 단행한 것이다. 송시열(宋時烈)은 기문을 지어주며 그가 수립한 별서의 경영 계획을 기록으로 남겼다.<sup>33)</sup> 그러나 이단상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생전의 계획은 아들 이희조(李喜朝, 1655~1724)에 이르러 완성을 이룬다.

영지동(靈芝洞)은 양주 동쪽 40리 쌍수촌(雙樹村) 서쪽 자지산(紫芝山)의 아래에 있다. 골짜기가 대개 넓고 그윽하며 아득하고 깊다. 오래된 시냇물이 맑은데 산에서 발원해 골짜기로 쏟아지니 비록 가물어도 또한 마르지 않는다. 선군자(先君子: 이단상)께서 처음 동강(東岡)에 거처하시며 살 곳으로 정하고 즐거워하셨다. 하나의 큰 못을 판 뒤 물을 끌어다 부었고 다시 그 위로 나아가 먼저 작은 서재를 짓고 정관재(靜觀齋)라 하셨다. 이는 이곳에서 도를 강학하며 늙어서 생을 마치려 하신 것이지만 불행히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 단율(短律)을 지어 뜻을 보이셨는데 그 마지막 두 구는 다음과 같다. “밝은 덕업을 성실히 이루지 못하고, 은택 미칠 기약 공연히 저버렸네.

32) 이단상의 정관재와 영지동 별서는 다음의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조명된 적이 있다. (이종목, 「격물치지의 공간 이단상의 정관재」, 『조선의 문화공간』 3, 휴머니스트, 2006)

33) 宋時烈, 『宋子大全』 권143, 「靈芝洞記」.

천 년 동안 영지동 달은, 고요히 정관재 못을 비추리라.” 대개 숨이 다하여 임종하시는 순간에도 또한 일찍이 잠시도 이곳을 잊지 못하신 것이다.<sup>34)</sup>

이희조가 지은 영지서실(靈芝書室)에 대한 기문이다. 부친 이단상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아들이 이어받아 완성하며 이를 기념한 것으로, 이상은 이단상이 처음 영지동에 정관재를 경영했던 기억을 돌아본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영지동의 위치이다. 이희조가 말한 자지산(紫芝山)이란 지금의 퇴계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고, 영지동은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지동 남쪽으로 가로막는 산이 없고 퇴계원의 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영지동 별서는 퇴계원과 잇닿아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실제 이단상의 영지동을 두고 지어준 당시 문인들의 시문에는 퇴계원과 결부된 영지동의 위치가 명확하게 포착된다. 김창협(金昌協)은 「지동신거상량문(芝洞新居上梁文)」에서 남쪽에 들보를 던지는 노래를 부르며 멀리 바라보이는 시내와 언덕이 토원과 잇닿은 사실을 언급했다.<sup>35)</sup> 김창흡(金昌翕)은 「적성잡영(赤城雜詠)」에서 영지동을 향하며 토원에서 나무꾼 노래가 들려오는 장면을 묘사했다.<sup>36)</sup> 이단상이 세상을 떠나고 천장(遷葬)할 때 지은 만시에서도 토원을 함께 언급한 것을 보면, 영지동 별서는 가히 퇴계원 일대를 대표했던 별서로 손꼽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sup>37)</sup>

34) 李喜朝, 『芝村集』 권19, 「靈芝書室記」: 靈芝洞, 在楊州東四十里雙樹村西紫芝山之下. 洞蓋寬豁幽邃, 窈然而深, 有古澗清冷, 發源於山, 而瀉于洞, 雖旱亦不渴焉. 先君子始居東岡, 因卜而樂之, 既鑿一大池, 引水而注之, 且就其上, 先立小齋曰靜觀, 蓋將講道終老於斯, 而不幸遽下世矣. 易簀前三日, 嘗作短律以見志, 其末二句有云: “未就誠明業, 空違致澤期. 千年芝洞月, 虛照靜觀池.” 蓋雖奄奄臨絕之境, 亦未嘗須臾忘此也.

35) 金昌協, 『農巖集』 권26, 「芝洞新居上梁文」.

36) 金昌翕, 『三淵集』 권7, 「赤城雜詠」.

이단상이 영지동에 별서를 경영할 무렵, 인조(仁祖)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도 퇴계원과 인연을 맺었다. 인평대군의 본명은 이요(李堯)로 자는 용함(用涵), 호는 송계(松溪)이다. 시서화(詩書畫)에 능통했고 왕족의 부귀를 바탕으로 많은 별서를 경영했던 인물이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곳으로 낙산(駱山)의 석양루(夕陽樓)와 북한산(北漢山)의 영휴당(永休堂) 등이 있는데 이곳 퇴계원에도 또 하나의 정자를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산수에 매료된 것이 틀림없다.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은 인평대군의 정자에서 시를 지었다.

|          |   |
|----------|---|
| 王孫亭子枕山頭, | 왕손(王孫)의 정자 산머리를 베게 삼아                   |
| 更有雕欄俯碧流. | 다시 화려한 난간이 푸른 물결 굽어보네.                  |
| 長路界分平楚遠, | 기다란 길 멀리 평원에서 경계 나누고                    |
| 疎松影落小庭幽. | 성근 소나무 호젓한 뜰에 그림자 떨어준다.                 |
| 仙居久鎖烟霞地, | 신선의 거처 오래도록 연하에 잠겨 있고                   |
| 暇日聊消客子憂. | 한가한 날 그저 나그네 수심 사라져가네.                  |
| 最是憑高腸斷處, | 높이 기대어 가장 애간장 끊어지는 곳이라                  |
| 一盃難答菊花秋. | 한 잔 술로 국화꽃 가을에 답하기 어렵구나. <sup>38)</sup> |

임수간은 1696년(숙종 22) 가을, 퇴계원에 있던 인평대군의 정자에 올랐다.<sup>39)</sup> 제목에서 9일이라 하였는데 계절이 가을인 것을 보아 중양절(重陽節)에登高(登高)를 행하며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수간이 이곳을 찾았을 당시 인평대군은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한동안

37) 金昌翁, 『三淵集』 권9, 『靜觀齋遷葬挽』.

38) 任守幹, 『遜窩遺稿』 권1, 『九日, 登兔院麟坪大君亭子』.

39) 임수간이 인평대군의 정자에 오른 시기가 1696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부친 임상원(任相元)이 지은 시도 함께 전하는데, 이때가 병자년(1696) 가을로 확인된다.

방치되어 있던 그의 정자에 올라 인생무상(人生無常)의 감회를 읊었다. 인평대군의 별서는 산 높은 곳에 지어져 그윽한 정취를 자랑했던 듯한데, 별서의 모습과 함께 묘사한 풍광의 기록이 자세하다. 퇴계원을 굽어보았던 곳으로 당시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던 길에 대한 정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평대군의 별서는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폐치된 듯하지만 그 제도는 한동안 보존되었던 모양이다. 임수간이 시를 지은 이때 부친 임상원(任相元)도 함께하며 정자를 제재로 시를 지었는데, 높은 느릅나무와 늙은 측백나무가 자라는 정경을 묘사하고 산기슭에 인평대군의 오래된 정자가 자리한 사실을 말했다.<sup>40)</sup> 다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인평대군의 별서를 아름다움 가득한 공간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이 요구된다. 박세당(朴世堂)이 지은 김남중(金南重)의 묘지명을 보면, 김남중이 대사헌이 되었을 때 인평대군이 동교의 땅을 차지하고 나무하는 것을 금지시켜 백성들이 고초를 겪자 공이 이를 비판한 적이 있다.<sup>41)</sup> 호화로움과 사치의 이면에는 언제나 숨겨진 그들이 있는 법이다.

이상의 경우가 퇴계원 일대에 경영된 별서였다면 역원의 성격을 활용해 경영한 별서도 등장했다. 도성과 가깝고 교통의 편리함에 기댄 사례이다. 19세기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계려(憩廬)가 그러하다. 이유원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경춘(京春), 호는 굴산(橋山)이다. 1841년(헌종 7)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했고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실각한 이후 고종의 총애를 받아 영의정(領議政)의 지위에 올랐다. 구한말 국가의 중책을 떠맡은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다.

이유원의 별서는 본래 가오곡(嘉梧谷)에 있었다.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속하는 지역으로 당시만 해도 도성과 한 달음에 왕

40) 任相元, 『恬軒集』 권24, 「兎院大君亭」.

41) 朴世堂, 『西溪集』 권10, 「禮曹判書慶川君金公墓誌銘」.

래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유원은 19세기 정세에서 출사와 사직을 반복하며 국정을 주도했는데, 이때 조정에서 물러나면 가오곡 별서로 돌아갔다. 이러한 현실에서 왕래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기에 도성과 가오곡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에 경유를 위한 별서를 경영하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퇴계원이었다.

이유원이 퇴계원에 별서를 두고 스스로 지은 기문은 다음과 같다.

왕성(王城: 서울) 동쪽 1사(舍) 되는 곳이 퇴계점(退溪店)으로 바로 퇴조원(退朝院)에서 수백 보 거리에 있는 곳이다. 홍복산(洪福山)에서 산맥이 내려오고 불암산(佛巖山)에서 장막을 열어젖히며, 묘적산(鈔積山)이 얼굴을 마주하고 청계산(靑溪山)이 몸을 보호한다. 가운데 큰 냇물이 있어 오대산(五臺山)에서 발원하니 왕숙천(王宿川)에서 퍼져 감돌다 강으로 흘러들어 하나의 도회지가 된다. 북쪽으로는 관북(關北: 함경도)과 통하고 남쪽으로는 교남(嶠南: 경상도)과 접하며 보따리장수가 그 사이를 왕래한다. 내가 일찍이 왕경(王京: 서울)에 조회하면 길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갔는데 한적하고 큰 집을 얻어 잠시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다. 집은 절벽 아래에 있고 병풍을 두르고 장막을 펼친 듯하여 만나질을 쉬기에 풍족하였다. 이에 벽에다가 퇴천계려(退川憩廬) 네 글자를 적어 걸었다.<sup>42)</sup>

이유원이 지은 「퇴천계려기(退川憩廬記)」 전반부의 내용이다. 도입부에서 퇴계점(退溪店)과 퇴조원(退朝院)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국

42) 李裕元, 『嘉梧藁略』 책12, 「退川憩廬記」: 王城東一舍地退溪店, 卽退朝院之數武近也. 落脉於洪福, 開帳於佛巖, 鈔積爲案對, 靑鷄爲護身. 中有大川發源五臺, 布滙王宿, 入于江, 一都會也. 北通關北, 南接嶠南, 冠蓋商旅, 往來其間. 余嘗朝于王京, 路必由於此, 取靜閑儻斗大屋, 作爲憩息之所. 屋在絕壁下, 如圍屏架幕, 有足以半日間也, 揀閒壁, 書揭退川憩廬四字. 이유원의 퇴천계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그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다. (김세호, 「이유원(李裕元)의 별서 가오곡의 임하려(林下廬)」, 『조선시대 화도·수동 역사인물 이야기』, 남양주문화원, 2018, 195쪽)

가의 역원과 분리되는 나그네를 위한 주막과도 같은 곳이 따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은 조정에서 활동하다가 가오곡을 왕래하며 수시로 도성과 별서를 오고갔다. 이때마다 서울과 가오곡의 거리가 멀어 중간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퇴계원 일대였다. 서울과 별서의 중간 지점에 해당했기에 마침내 큰 집을 얻게 되었고 '쉬는 초려'라는 의미의 계려(憩廬)를 두었음을 밝혔다.

이유원의 기문에는 앞서 확인되지 않은 퇴계원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퇴계원의 지세에 대한 기록이다. 퇴계원을 두른 산수에 대한 내용이 보이는데 모두 오늘날까지 이름이 전하는 곳들이다. 양주의 홍복산(洪福山)과 서울의 불암산(佛巖山)을 따라 내려오면 오늘날 남양주시 백봉산에 해당하는 묘적산(妙積山: 묘적산(妙寂山))과 과천의 청계산(靑溪山)으로 이어진다. 퇴계원을 두른 산의 기록이다. 그 사이로 오대산(五臺山)에서 발원한 한강물이 흘러드니 사실상 배산임수의 자연조건을 지닌 천혜의 땅이라 하겠다. 특히 이유원은 이곳이 교통의 요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며 남북을 왕래했던 사실을 덧붙였다. 퇴계원에 별서를 소유한 일종의 자부심이 드러난다.

이유원은 퇴천계려를 경영한 뒤 이곳을 자주 활용했다. 당시 고종과 나눈 대화를 보면 퇴계원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보이고 신하들 역시 영의정 이유원이 사는 곳을 퇴계원으로 지칭한 사례도 나타난다.<sup>43)</sup> 이유원이 사는 퇴계원의 별서란 바로 퇴천계려를 가리키니 조정에서 물러난 처신을 보이고자 이곳을 사용했음이 분명하다.<sup>44)</sup> 그렇다고 퇴계원의 별서

43) 『승정원일기』 고종 11년(1874) 12월 16일; 12월 25일.

44)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문인들은 도성 근교에 별서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벼슬에서 물러나면 도성 내에 거주할 수 없었기에 교외의 공간으로 물러나 복직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유원의 퇴천계려 또한 유사한 성격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정치적 의도에만 국한되어 경영된 곳은 아닌 듯하다. 이유원은 도성을 왕래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즐겼다고 하였고, 수레 앞에 수선화(水仙花) 화분 하나를 두고 종에게 차병을 매달아놓게 한 뒤 시골주막이나 시냇가의 집을 만날 때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화분의 경치를 감상했다고 한다.<sup>45)</sup> 아마도 퇴천게려가 생기면서 반드시 이곳에 머물러 차를 마셨을 것이요, 수선화를 감상했던 것처럼 이곳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한편 퇴계원 일대에는 여러 명가의 선영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 자취를 알기 어렵지만 전하는 기록에서 여러 묘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김이(金沂)의 묘가 있었다. 김이는 구안동 김씨로 김공망(金公望)의 아들인데, 당시 이곳에 선영에 묻혔다는 기록으로 보아 안동김씨 가문의 묘가 널리 경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6)</sup> 임희성(任希聖)은 “홍인문을 나와 동북쪽으로 30리를 가서 토원의 대천(大川)을 건너고 다시 꺾어져 동쪽으로 몇 리를 가면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서쪽이 열렸는데 그 이름을 내입곡(奈入谷)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곳에 풍천임씨(豐川任氏)의 합장지가 있음을 증언했다.<sup>47)</sup> 한편 18세기 역관을 지냈던 홍순명(洪舜明)의 묘소도 이곳 퇴계원에 있었다고 한다.<sup>48)</sup>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도성 근교의 공간이란 특징에 기대어 선영과 별서가 자리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45) 李裕元, 『嘉梧藁略』 책5, 「嘉梧老人還鄉, 置水仙花一盆於車前, 命僕夫掛茶壺, 遇野店溪舍, 輒啜一盞水, 睨視盆景」.

46) 李選, 『芝湖集』 권12, 「伴吟翁金公行錄」.

47) 任希聖, 『在潤集』 권4, 「女婿生員李君配豐川任氏合葬墓誌銘[并序]」: 出興仁門東北行三十里, 涉兎院大川, 又折而東幾里許, 有谷呀然西開, 其名曰奈入谷.

48) 趙顯命, 『歸鹿集』 권14, 「副護軍洪君墓表」.

## 5. 결론

퇴계원은 조선 전기 도제원이라 일컬어진 역원으로 토원이라는 지명에서 파생되어 오늘날의 이름으로 전하게 된 곳이다. 조선시대 역원의 기능과 도성 근교의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기 도성의 가장 가까운 역원으로 기능하며 국왕의 행차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퇴계원에는 능행의 행차가 쉬어가며 주정소가 생겨났고 국왕은 이곳에서 농사의 형편 등을 살피는 국정운영의 공간으로 기능했다. 둘째, 서울 동쪽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로 유람객의 중요한 경유지가 되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오고가며 휴식 및 점심식사를 하거나 만남을 약속했던 장소로 이용된 정황이 보인다. 셋째, 역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사대부의 선영 및 별서지로 각광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정에서 활동하던 중 벼슬에서 물러나면 교외의 공간을 다양한 양상으로 활용했는데, 은거를 빙자하거나 정치적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퇴계원에 별서를 경영했다.

퇴계원은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기록에 회자되며 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조선 전기 국왕의 정책에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용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울 가까이에 위치한 역원으로 교통의 요지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고, 한편에서는 도성 교외에 위치하여 전원의 한적한 아취가 가득했던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상을 통해 조선시대 근교에 위치한 역원의 특징을 일부 확인했다고 하나 일제강점기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퇴계원의 변모과정에 대한 분석은 온전히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문헌기록에 의존하다보니 현전하는 문화유적 등을 통한 문화사를 규명하

는 작업에도 이르지 못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역원이었던 퇴계원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역원을 중심으로 이용된 옛길의 현황을 함께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상의 작은 결과가 앞으로 지속될 역원 및 옛길 연구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진한엠앤비, 2015.
- 김세호, 「이유원(李裕元)의 별서 가오곡의 임하려(林下廬)」, 『조선시대 화도·수동 역사인물 이야기』, 남양주문화원, 2018.
- 『동아일보』, 1939년 7월 23일자 2단 4면.
- 『동아일보』, 1939년 8월 15일자 2단 8면.
-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 『퇴계원산대놀이』, 월인, 1999.
- 안대회,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447~479.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1~1554쪽.
-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3, 휴머니스트, 2006, 1~532쪽.

## ABSTRACT

## The Cultural History of Toegyewon(退溪院) in Joseon Dynasty Period

Kim, Se-ho

Among the cultural heritages existing today, there is a high interest in the "old road". The old roads were connected around the post town(驛院) as the center, but little studies were performed on this post town. For this reason, Toegyewon(退溪院), one of the post town in the Joseon Dynasty was studied in this paper. It corresponds to the area of Toegyewon-eup, Namyangju-si, Gyeonggi-do. Although it functioned as a post town near the capital city, only limited general information and some custom were introduced, and no detailed information is known. Thus, through the literature records, this paper figures out the history of Toegyewon, analyzes the records of passing by and looks through the details of people who lived in. It is hoped that the features will be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oegyewon are as follows. First, it functioned as the nearest post town from the capital city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place for the king's visit. There are circumstances of taking a rest, looking around the conditions of farming, and etc. during the king's visit to royal tombs. Second, it was located at a transportation hub and became a resting place for coming and going from the east Seoul. It is caught that the tourists had lunch or made appointments to meet. Third, a village was built around the post town then it had the limelight as a country house of nobleman(士大夫). For example, they made use of it for managing ancestor's graves, enjoying the natural scenery and conducting their political life. In conclusion, it was a space where the function of the post town in Joseon Dynasty and characteristics of near the capital city coexisted.

**Key Words** Dojewon((渡濟院), Towon(兔院), the post town(驛院), Lee, Dan-Sang  
(李端相), Lee, Yu-Won(李裕元)

논문투고일 : 2019.10.15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